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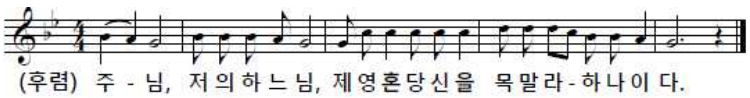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툿찡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지혜 6,12-16

화답송 | 시편 63(62),2.3-4.5-6.7-8(◎ 2ㄷ 참조)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 1테살 4,13-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5,1-13

영성체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성가 | 입당 27 예물준비 237(216)
영성체 499(498) 파견 436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문귀영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 금상연 스테파노
- 김두시, 박봉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서정용 안드레아
- 이성영 요셉, 임소영 루시아
- 배동명 야고보, 김원순 아나다시아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이흥근 안드레아, 박상병 아가다 영혼을 위하여
- 금상연 스테파노 영원한 안식

생미사 지향

- 연령회 회원들의 영육 건강
- 윤복홍 요한 빠른 쾌유를 위해
- 윤복홍 요한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이웅희 루카 신부님
- 금지원 카타리나, 김자형 카타리나 영육 건강
- 윤 요한의 빠른 회복
-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에 상처와 분열을 일으킨 이들의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1월 8일	정유진	이정진	김은아	이정진 김은아	이정현 백이백	김수현 허우현
11월 15일	장혜윤	강호영	조은화	강호영 조은화	유정옥 정다경	한서희 김수현 양지수 허우현 김민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공동체 및 본당 행사로
11월 15일(영성특강), 11월 22일(헌혈행사)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이남석 베드로 형제님를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Rite of Entry'(OCIA 한국어팀)

세례성사로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견진성사로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비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한 본격적 준비과정에 들어갑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5일 오후 5시 미사 중 (OCIA영어팀과 연합)
대상: 2027년 세례/견진성사 예비자들(대부모 동반)

2026년 '영성의 해' 제6차 특강

11/15 (주일)	**아래성당** (11:00AM-12:30PM)	Sr. 마리율리안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027년 주보 광고 신청

2027년 주보 광고 신청 받습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마감 : 11/29(주일)까지,
게재비: $300(수납:재무데스크)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주보의 기존 광고는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제16차 성장세미나(성령쇄신봉사회)

일시: 11/13(금) 1:00PM-11/15(주일) 5:00PM
장소: 뉴튼수도원 (289 US-206, Newton,NJ 07860)
참가비:$320(식사/숙비 포함) + 교재비 별도$20
대상: 기초성령세미나를 받은 분으로 영적 성장과 공동체 봉사를 원하시는 분
신청/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2026 사랑의 음악회(주관:하늘처럼 성가대)

일시: 11월 21일(토), 7:00PM
장소: 대성전(티켓 수령 후 6:30PM부터 입장가능)
티켓 및 구매방법: 성인 $25, 청소년 $15 (12세 이하 무료)
- 현장 구매(매주일 미사 후 산다미아노 홀 티켓판매처)
- VENMO: @Pureum-Jeon
  ZELLE: 646-565-1746(Pureum)
- Check, Venmo, Zelle 의 **Memo** 에 "**이름과 음악회 티켓 갯수**"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예: 전푸름 어른 2 청소년 1 $65)

후원금 기부 : Cash or check: 후원자 성함 또는, 익명
Venmo: @Pureum-Jeon / Zelle: 6465651746
(Check, Venmo, Zelle의 Memo에 **"후원자 성함"** 과 **"2026 음악회"** 기입 바랍니다)

* 공연 후 간단한 다과회가 있습니다.
* 음악회 수익금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마이클 저지 OFM 빌딩 펀드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지난 주(10/25): 445단 **누적 집계:** 2,922단
주관: 맨하탄 한인공동체 꾸리아(Curia)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권천례 데레사 (1783-1819)



권천례(權) 데레사는 한국 천주교회 설립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딸이자 신유박해 순교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의 동생이다. 1783년경 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권 데레사는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까지 잃었다.

이후 한양으로 올라가 동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으나, 친척들의 설득으로 20세 때 조숙 베드로와 혼인하였다. 혼인날 밤, 권 데레사는 남편에게 동정 부부로 살 것을 청하는 글을 건넸고, 두 사람은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 또한 정하상 바오로가 성직자 영입을 위해 북경을 오갈 때마다 그를 도왔다. 1817년 3월 말 체포된 부부는 혹독한 문초에도 그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다. 배교를 권유받은 권 데레사는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2년 넘게 옥고를 치른 부부는 1819년 8월 10일(음력 6월 20일) 이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권 데레사의 나이는 36세였다. 한 달 뒤 시신을 거둔 교우들은 권 데레사의 머리채를 바구니에 담아 남이관 세바스티아노의 집에 두었는데, '바구니를 열면 향기가 진동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8, 가해, 2026. 11.08.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OCT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Colleen Insook Lee,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RESTORE STUDIOS
Dr.Iris M. Kim, PhD
▸레드라이트 테라피 ▸컴프레션 마사지
▸BREATHWORK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쓰레기”(필리 3,8)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신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기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을 염려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공동체는 한 곳, 필리피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하면서, 육적인 점에서 말한다면 자신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충실한 유다인이었고 흠 없이 율법을 지켰으며,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다교 신자로서 이러한 점들을 자랑한다면 바오로보다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모두를 해로운 것으로, 쓰레기로 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필리 3,10). 그저 고난에만 동참하고,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해서 가치 있고 소중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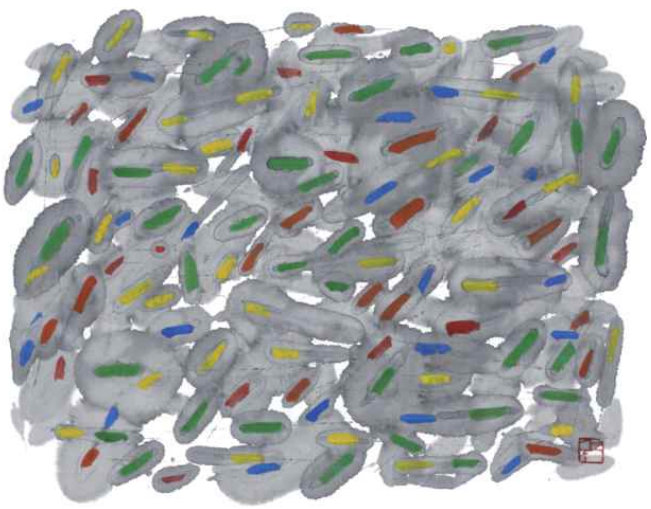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피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필리 2,6-11의 찬가 참조).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이를 본받는 것, 곧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이 마음을 그들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자신이 죽음을 겪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본받듯이, 필리피 신자들도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으며 이제는 부활에 이르신 그분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필리피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열은 있었고(필리 4,2-3 참조), 이기심과 허영심,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관습을 퍼뜨린다고 그를 모욕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가 어떤 사람의 하녀에게서 점 귀신을 쫓아내자 돈벌이를 못 하게 된 그 하녀의 주인이 바오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필리피 공동체의 신자들은 바오로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도 나중에 다른 이들이 와서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면 쉽게 넘어갔던 것에 비하여, 필리피 신자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진심을 믿었고, 그래서 사도는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 사도의 “기쁨이며 화관”(필리 4,1)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필리피 신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합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206, 가해, 2026. 10. 25.

그림묵상



풀씨 | 들풀의 씨앗들이 영롱한 등불을 켜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찔레는 찔레로 돋아나고, 들국화는 들국화로, 개망초는 개망초로 피어나서, 이 자리에서 아르누보의 문양 같은 기쁨을 주겠지요. 그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예외 없이 주님의 열매로 영글어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39호, 2026년 11월 08일(가해)